

광주·전남혁신도시 전입률 전국 '최하위'...각종 지표 '바닥'

6월 기준 계획인구 4만9499명 중 실제 등록 3만3525명 그쳐
지역 대학졸업생 수 '최고' 수준...지역의무채용은 '평균' 이하

광주·전남혁신도시가 계획 인구수에 비해 주민등록 인구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의 계획 주민등록 인구 26만7869명 중 실제 전입한 주민등록 인구는 79.8%인 21만3817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광주·전남혁신도시는 계획 인구 4만9499명 중 실제 주민등록 인구는 3만3525명으로 전입률이 67.7%에 그쳐 전국 꼴찌 수준이다.

계획 주민등록 인구수를 초과한 혁신도시는 부산(107.1%)이 유일했고 울산(95.5%), 강원(94.3%), 전북(92.9%), 제주(91.9%), 경북(83.2%), 대구(82.3%)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가족동반 이주율이

68.8%로 전국 평균 65.3%를 간신히 넘겼지만, 독신·미혼자 수가 2138명으로 전국 평균 1200명에 두 배에 이른다. 1인 가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가족동반 이주율의 거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율(2019년 기준)은 24.6%로 전국 평균 25.9%보다 낮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보다 더 낮은 지역은 경남, 제주, 충남뿐이었다.

지역인재 채용도 광주·전남혁신도시 전체 채용인원 3166명 중 17.3%인 549명이 채용되어 전국 평균 15.4%보다는 높았지만, 공동혁신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부산이 32.4%로 가장 높았고 대구(24.5%), 경

북(22.1%), 충북(19.8%), 충남(18%) 순이었다. 광주·전남은 대학교 수 40개, 최근 3년 평균 졸업생 수 3만6199명으로 부산, 대구를 제외하면 대학교 졸업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절실한 실정임에도 다른 시·도가 대부분 운영 중인 '지역인재 채용협의회'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보급율은 79%로 전국 평균(87.1%)보다 낮았고 이는 충북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초·중·고등학교도 계획 대비 70% 수준으로 전국 평균(79.6%) 이하인 데다 유치원도 63.6%로 전국 평균(85.1%)보다 낮아 혁신도시

중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교육 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복지 인프라 접근성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도 전국 평균보다 멀리 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열악한 교육환경, 의료 복지 인프라 접근성 확보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 공동혁신도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상생형 공동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담양군, 가을 전령 코스모스 '만개'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와 덕곡리 2.0km 구간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다. 파란 가을하늘을 향해 길게 뻗은 코스모스는 햇볕에 반짝이며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다.

추석연휴 전남지역 병원 환자 면회 금지

코로나19 차단 위해 328곳 대상
불가피 경우 사전예약 통해 진행

추석 연휴 기간 전남도 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한 면회가 금지된다.

전남도는 28일부터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병·의원 입원환

자 면회를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추석연휴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염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추진한다.

병·의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로 코로나19에 취약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상은 도 내 종합병원 24개소와 병원 79개소, 요양병원 90개소, 입원실 있는 의

업금 의료기관 110개소, 한방병원 25개소 등 총 328개소에 적용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면회는 원칙적으로 통제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별도 지정된 면회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면회를 진행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보호자 안심전화 제도를 운영, 간병인 등이 환자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연휴 기간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보호자에게 전화로 안내한다.

김정환기자

광주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키로

추석명절 연휴 기간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0월11일까지 2주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유지한다"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집합금지 조치한 고위험시설 6종 외 나머지 집합제한시설 33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운영 중단, 노인요양시설 면회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 진행, 공공시설 제한적 운영 등 조치도 10월11일까지 유지한다"며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투병 가림막 등 비접촉 설비를 갖춘 경우 추석 연휴인 30일부터 10월4일까지 제한적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서 마스크 안 쓰면 내달 13일부터 벌금

광주시가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거듭 강조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26일 밝혔다.

모든 광주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광주시는 10월 13일부터 이를 위반한 시민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대중교통·다중시설)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도기간은 10월 12일까지다. 계도기간 중에도 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를 청구한다.

추석 연휴로 다음호 10월 5일자 발행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더 좋은 일자리

2020 광산구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4주간
접수기간 2020. 9. 11.(금) ~ 10. 8.(목)

참여대상		공모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2021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제안 	
시상내용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메일, 우편 접수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4건)
100만원	80만원	50만원	20만원
		참가상 (20명)	상품권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제안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운영기관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신청서 등 다운로드 : 광산구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
검색 <https://url.kr/vFaWyO>

광산구

문의 광산구청 일자리정책과(062-960-3921)